



# 대구광역시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5340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since 1996

오늘의 날씨 대구 -1~9℃ 경북 0~10℃

단기 4356년(음력 11월 15일)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www.dgy.co.kr



## 동구청,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구시 동구청이 행안부에서 시행한 2023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 4개 부문 10개 지표로 평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에 80억원, 21개 기초자치단체에 60억원 총 1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동구는 지방규제혁신 TF 운영 부문과 신규 규제개선 성과 등 중앙규제개선 노력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재정인센티브 2억원의 확보했다.

산업단지 내 OEM 생선제품 판매 제한 규제 완화 사례로 추가점을 받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직원의 노력과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도 규제혁신 분야에 주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고령대가야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고령군의 대가야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전국 1200여개 축제 중심사를 거쳐 25개의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25개 축제는 2024~2025년 2년간 국비를 들여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대가야축제는 360도 무지향성 이동식 대중경보장치인 울트라보이스 도입과 가야금 100대를 활용한 공연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주민 자율참여 축제인 대가야축제를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연계해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경산 총선, 외나무 다리서 만난 '박근혜 사람들'...

##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두현 홍보수석, 조지연 대변인실 출신

내년 4·10 경산 총선에서 박근혜 사람들이 맞짱을 뜬다.

여권에서는 윤두현(62) 의원, 조지연(37) 전 대통령실 행정관, 최경환(68) 전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사람들' 간 3자 경쟁 구도다.

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때 국무위원과 청와대 보좌 경력을 갖고 있다.

경산 출신으로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역할을 한 이들은 이번 총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볼



사진은 왼쪽부터 윤두현·조지연·최경환

꽃튀는 대결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다.

YTN 보도국장, 디지털YTN 대표이사 사장,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으로 이번이 재선 도전이다.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조지연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4년간 청와대 대변인실과 뉴미디어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선출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담당한 참모 원년 멤버이다.

그는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을 연이어 보좌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윤 의원과 조 전 행정관은 이번 총선 공천 경쟁이 리턴매치다.

2020년의 제21대 총선때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 최종 경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어 윤 의원이 '58.1대 61.9'라는 근소한 차이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두 사람과 달리 아직 당적이 없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여당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를 거치는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한다.

제17대 국회부터 경산에서 내리 4선을 한 최 전 부총리는 시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5선 도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그의 측근은 "총선 출마에 뜻이 있는 대부분의 중진 정치인들(OB들)이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정국 상황을 관망하고 있으며,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튀지 않고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게 전략"이라고 했다. 신경은 기자



## 크리스마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경북청년봉사단이 경주시 산내면을 방문, 크리스마스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에도 힘을 보탤다. 단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방문해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도 이랑 곳하지 않고 온기를 나누었다.

(사진=경북도제공)

## 경북 원전 예산 1216억 반영

경북도는 25일 내년 국비에 경북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이 전년(692억원)보다 76%(524억원) 늘어난 1216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과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 사업,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과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사업비도 내년 국비에 편성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경주·울진 원자력 국가산단 선정에 따라 도는 차세대원자력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가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러서는 안된다"며 "세계 각국이 차세대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이 원전 수출과 기술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 대구 출신 중앙회 나만술 회장 중앙회 명예회장에 임명 영예



나만술 회장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마련한 '2023 사랑의 끈연결운동'이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역 KTX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의 효시다.

국내 단체로는 최초로 국제연합(UN)에 등록

돼 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에 사는 10만 여명의 결연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준다.

정·관계 및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의 1:1자매결연으로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진로문제를 좀 더 안정·체계적인 지원환경을 만들어 주는 중앙회의 목적 사업이다.


행사에서 대구 출신 前중앙회 나만술 회장이 중앙회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 후, 회장단과 학생들의 패션쇼를 거쳐 많은 이들에

게 연말 분위기를 선사했다.

한정효 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연말 연시에 서로 즐겁고 또 행복한 가족과 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연말·연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의 끈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사랑의 끈 연결운동본부는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분야의 사랑 나눔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 한동훈 “이재명 운동권·개발과 결탁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한동훈(사진)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 일성으로 “다수당이 폭주하며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을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 폭주하며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썩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

권 세력과 개발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 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며 “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용기와 헌신은 대한민국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다. 그 무기를 다시 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을 대신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며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와 경기, 서울에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임명됐다. 1973년생(50)인 한 비대위원장은 역대 보수 정당 최연소 비대위원장이자 타이틀을 달았다.

## 한동훈 “지역구·비례 출마 안 하겠다”

〈수락 연설 전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위원회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했고, 찬성 627명, 반대 23명이었다.

아래는 취임사 전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썩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발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 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배사장 위에 조산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베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몰라서 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발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기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인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이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이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심본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시는 이유입니다.

ADVERTISEMENT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분석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머무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뀔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 보여드립니다.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

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관련 기사

국힘 전국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 찬성 96.5% 가결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서 지고 싶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었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 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올림



경북교육청, 학생 연구 활동 성과 발표의 장 마련 경북교육청은 최근 구미교에서 ‘제19회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 2023년 학생 SW-시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미래 과학자양성프로그램 45팀과 학생 SW-시인재 양성 프로젝트 30팀 등 총 75명의 학생과 지도교사, 지도교수, 자문위원, 학부모 등 6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연구 발표 부스를 둘러보고있다. (사진=경북교육청제공)

## 청구중, 올해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우수상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다양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박차

2023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청구중학교’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 국제교 우수상 수상, 2022년 예야람학교 최우수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교육시설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교수학습과 연계한 창의적인 공간 등 학습효

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시설 조성을 꾀하는 교육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공모전에서 2021년 9월 1일 이후 공사 완료된 신축, 증축, 개축 및 새단장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배치계획,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배치, 안전 계획, 친환경 설계,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교육시설을 선정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청구중학교는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 분관동과 원형관동을 전면 리모델링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조성했다.

학생, 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 및 디자인

을 통해 분관동에는 일반교실, 교무실 등을 배치했다.

원형관동은 IB World School 전환을 위한 디지털 도서 학습실, 메이커 스페이스, 강의실 등 특별교실을 배치, 2개의 건물 간 공간 특성을 활용, 유연 수업이 가능토록 했다.

아외공연장 및 도서실 등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3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공모 최종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2023년...

2021년 7월 21일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 3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MR국가산단'의 유치 확정 세례모니를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감도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 역사문화관광도시 넘어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경주시

## 내년도 예산 심의서 확보한 국비 바탕 신성장 동력산업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을 서로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한 말이다.

주 시장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첨단산업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는 2018년 취임 이후 5년 간 경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새로운 경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크다.

3년을 끌어온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경주시의 복안을 직접 들여봤다.

주 시장은 “SMR국가산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조성 후 본격가동하면 경주는 물론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른바 에너지 산업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신성장 동력 산업 집중

경주시는 정부 내년도 예산 심의서에서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미래 꿈의 에너지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2021년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3월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경주 선정,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SMR국가산업단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들어서게 됐다.

현재 국가산단은 전국 47곳으로 경북은 구미 6곳, 포항 2곳, 경주 1곳(월성원전) 등 9곳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라는 큰 결실을 거둔 셈이다.

SMR국가산단조성은 국내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이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8기 경주시의 핵심 전략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19일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일대에서 첫 삽을 뜬 '중수로해체기술원' 역시 경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 ■첨단 에너지 산업 도시 '경주'

'작은 부품 묶음 원자로'라는 그 뜻 그대로 SMR은 출력 300MW급 이하의 소형원자로로 안전성이 높고 설계와 제작이 매우 간소한 원자로다.

현재 세계 20여 국가가 71종의 SMR을 개발 중

이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향후 SMR 시장 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도 정부 주도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2050 탄소중립의 핵심전략으로 SMR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SMR 독자개발 등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사업 투자를 공언하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경주는 6기의 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어 원전산업의 최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착공에 들어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사업은 국비 2700억원 등 모두 6540억원 투자를, 1145만㎡에 연구시설 16개동을 짓는 초대형 일감이다.

2025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완공되면 연구 인력만 500~1000여 명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등 원전 고도화를 담당하게 된다.

시는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유치 등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 ■'경주 SMR 국가산단'

정부는 올해 3월 경주시 문무대왕면을 미래 원자력산업을 주도할 SMR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

SMR핵심원자력 국가산단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 150만㎡(46만 평)에 2030년까지 39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다.

경주 문무대왕면 일대엔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 규모의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국가 차원의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구상이다.

SMR은 쇠빙선·선박 해양용과 우주용 전력 에너지원으로 응용 가능해 2035년에 세계 시장이 630조원 규모로 커진다.

현장 설치비 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원전과 비교해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SMR국가산단에는 원자력·전력, 원전해체, 연구개발서비스 등 핵심 23개 업종과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비 등 29개 연관업종이 입주한다.

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앞서 SMR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SMR 국가산단 경주 지정 시 입주의향' 등을 묻는 조사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서 275만㎡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정 시설용지(97만㎡) 대비 283%에 해당한다.

SMR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

인다는 방증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SMR부품 인허가기관 설립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추진, 장기 임대 등 미분양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는 SMR 국가산단 유치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미래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비상을 서두르고 있다.

### ■'중수로해체기술원' 첫 삽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사용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지난 19일 경주에서 첫 삽을 떴다.

원전 해체기술개발의 전초 기지가 될 이 시설은 경주시를 비롯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연구원, 산업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만 9487㎡ 터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 시험동, 사무연구동 등이 들어선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완공되면 원전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기술을 실증 시험 및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

해체 사업 관련 폐기물 분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

운용 찬기자/사진 경주시제공




## 2025년 APEC 정상회의

#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포항 올진  
영덕 올름



화재 포항제철소 정상 가동

화재로 생산설비 일부가 가동을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24일 포항제철소에 따르면 오전 2시 2교로에 이어 3.4교로도 정상가동을 시작했고 제강설비는 화재 진화 이후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압연설비 또한 안전점검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으며 화재와 정전으로 인한 설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쇠물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선강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소배관이 파손되는 과정에서 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에 의해 발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정전으로 인한 설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영덕 상수도 요금감면 확대

영덕군은 내년 2월 고지되는 1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고령제 대상자, 심한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적 약자와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으며,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도 취해졌다.

감면신청은 내년 1월부터 연중 진행되며, 대상자는 각 읍·면이나 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접수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군수는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31일 삼사해상공원서 타종식  
용 퍼포먼스·송년음악제 마련  
신년 블루로드 걷기대회 등도

영덕군은 오는 31일 목은 해 2023년을 떠나보내고 새 희망을 불러오는 '2024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개최한다.

작년 타종식 행사는 온라인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개최되어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동해안 일출 명소, 강구 삼사해상공원 내 경북대중종각과 헬기격납고에서 대규모로 펼친다.

'2024 새해맞이 타종식'행사는 31일 22시부터 조영구MC의 사회와 팝스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진성, 김용임, 최유나 등 최고 가수들이 출연하는 송년음악제로 시작된다.

가수 공연 후엔 용을 주제로 한 무용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자정 직전 카운트다운과 함께 시작되는 타종식은 총 90여 명이 9개조로 조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관, 단체장과 주민 그룹 외에 미리 신청받은 타지 방문객에게도 타종의 기회를 제공해 전 국민의 소망을 담은 예정이다.

경북대중은 1996년 경북도 개도 100주년 되던 해 조국통일, 민족화합이란 도민의 큰 뜻을 담아

영덕군에 세워진 웅장한 기념물이다.

통일신라시대 호국의 상징인 성덕대왕신종을 본떠 만든 경북에서 단 하나뿐인 종이다.

타종식이 펼쳐질 경북대중 종각 계단에는 갑진년을 상징하는 푸른 용 모양 대형 등이 설치돼 청룡 포토존으로 운영되고 부대행사로 영덕군 생활개선회 등 5개 민간 단체가 부스를 차리고 신년운세는 물론 어묵, 부추전, 떡국, 군밤, 군고구마 등 간식과 따뜻한 차를 제공한다.

새해맞이 타종식을 준비하는 군 관계자는 "맑은 바람과 태양의 생명력 가득한 영덕에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기원하며 종소리를 널리 울리고자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전 군민이 마음을 모아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해맞이 타종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종식 이후 1월 1일 영덕의 첫 해는 오전 7시 34분에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맞이는 읍면 단위에서 자체 행사로 벌어진다.

영해면 대진해수욕장에서 신년 블루로드 걷기대회와 무료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풍물패의 길놀이와 달집태우기, 떡국 시식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일만대교 건설 속도...국비 1350억 확보

설계·공사 대규모 예산 내내  
내년 본격 착공 기대감 고조

포항시는 동해를 가로지르는 영일만대교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내년도 국가 투자예산에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설계 및 공사비 13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예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대교가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초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예산 편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은 국회 예산이 통과된 다음 날인 지난 22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4년 국비 확보에 힘써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주요 국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영일만대교 건설과 이차전지 등 포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예산 등을 대거 확보한 만



큼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방 소멸을 막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을 수시

로 방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항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물류, 관광의 대동맥을 잇는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경징계 하나 먹으면 그만"...울진군 공무원 갑질·폭언 논란

마린CC 골프장 건축허가 관련  
공문 묵살 의혹까지...郡은 반박

울진마린CC골프장 조성과 관련, 울진군 공무원이 비엔지 측에 공문 묵살과 미접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비엔지는 지난 2022년 8월 4일 군 체육진흥사업소에 건축허가변경을 위한 1차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군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2차로 같은 해 8월 10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3개월이 지나도 군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비엔지는 2022년 11월 10일 군 건축과에 건축허

가 변경을 위한 공문을 또 다시 발송했다.

다음날(11일) 비엔지 관계자는 울진군 B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공문 발송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공무원 B씨는 비엔지 관계자에게 "우리랑 해보자는 얘기인데 8월 10일 날 보낸 공문은 접수도 안 됐다. 군수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며 "내가 반려 공문을 안 보낸 죄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두고 보자. 나 하나 작은 징계 하나 먹으면 되는 일이다. 앞으로 한번 보자. 1도 안 도와 줄 거니까"라고 했다.

결국 군은 비엔지 측의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묵살 내지 미접수하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엔지 측은 이 같은 녹취록을 틀어주며 "공무원 B씨가 8월 10일 공문은 접수도 안 됐다는 말은 자신이 받았지만 군수가 탐탁지 않게 여겨 묵살 내지 미접수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군정 주요 사업과 관련 사업자가 보낸 공문을 공무원이 임의로 묵살 미접수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직무유기"와 "폭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수개월 간 비엔지 공문을 미회신한 사유에 대해 설계 변경 요청문서는 2022년 10월 정식 접수됐으며 2022년 8월 설계 변경 요청 문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수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 4·확장·하이테크벨리 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헬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중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창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재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최기문 영천시장은 27일 오전 영천읍성 전시관 앞마당(조양공원길 24)에서 열리는 영천읍성 전시관 개관식 및 전시행사에 참석한다.

영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영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총력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화남면 삼창리 야산에서 포획된 멧돼지 3마리 중 1마리에서 ASF가 검출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과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는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화남면 삼창리를 기준으로 10km까지 방역대를 설정했다. 해당 지역 입산 자제를 당부하며 양돈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축산농가별 전담공무원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임상 관찰 등 빈틈없는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또 선제적 대응책으로 경계 지역 출입로의 모든 축산차량은 전자경매가축시장의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하고 있다. 최은하기자



청도 화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

청도군은 지난 22일 화양읍 어울림센터에서 화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을 축하하는 주민화합 행사를 가졌다.

화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민 문화복지서비스 공간 및 여가 편의시설 확충, 시가지 도로 정비,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98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게이트볼장, 서상소공원, 당산나무쉼터, 서상마을쉼터, 중심가로활성화,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추진됐다.

특히 어울림센터, 게이트볼장, 마을쉼터 등이 확충되어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화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 활력공간을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영천시 행정, 올해 '기관수상' 57개... 역대 최다 경신

### 특별조정교부금 등 성과급 10억 확보 분야별 맞춤 시책 추진 시정역량 향상

영천시가 2023년 시정 추진에 대해 57개 기관표창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해 46건 대비 24% 상승한 수치다. 성과급도 10억여 원(특별조정교부금 3억 7천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 상사업비 3억 8천 2백만 원, 시상금 5천 5백만 원 등)을 확보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경북도로부터 받은 수상이 52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 외부기관에서 5건이다.

수상 내용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 투자유치, 일자리, 혁신, 에너지 등 전 부문에서 크게 우수 실적을 인정받아 시정역량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평소 정부와 상급기관 정책을 영천시에 맞게 적극적으로 연계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한 지역발전 추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 발굴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농업분야에서 △경북도 농정평가 우수상(10년 연속 수상) △과수산업 육성시책 최우수상(5년 연속 수상)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상(4년 연속 수상)을 수상하며 체계적인 농업정책 방향 수립과 고품질 및 친환경 농업 육성, 6차산업 활성화, 과실전생산단지 기반 조성, 맞춤형 수출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천 농업의 위상을 떨쳤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삼남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대상 △경상북도 투자유치 평가 대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고용률 67.6%(경북도 내 시부 1위, 전국 시부 4위), 청년 고용률 48.3%의 성과로 일자리 창출 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복지분야에서는 △시군문화유산 평가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우수사업장 선정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평가 우수상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보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 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경북도 내 시부 유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상(경북도 내 유일)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과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재정 건정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 투



대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고용률 67.6%(경북도 내 시부 1위, 전국 시부 4위), 청년 고용률 48.3%의 성과로 일자리 창출 우수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복지분야에서는 △시군문화유산 평가 최우수상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우수사업장 선정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평가 우수상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보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 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상했다.

행정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경북도 내 시부 유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상(경북도 내 유일)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과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재정 건정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 투

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반적인 재정 지표가 크게 향상된 점을 인정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해 우리 시가 작년의 수상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영천발전에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 했다.

또한 "2024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대구도시철도 연장,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이전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은하기자

##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열어

### "세계유산 도시로 위상 높여"

고령군은 대가야박물관과 대가야문화누리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등재 기념식과 고유세, 표지석 제막식, 가야금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비롯한 가야고분군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가야고분군은 1500년 전 가야의 실체를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배영백 기자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정치체 중 가장 넓은 영역을 갖추고 있으며 고대국가를 이룩한 대가야 지배층의 무덤군으로 평가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고령군의 100년에 걸친 속원사업이었던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완수한 것을 군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세계유산 도시로서 나날이 달라지는 고령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 '성주 메리참스마스' 행사에 2000여명 몰려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관광객 호응 얻어

2023 성주 메리참스마스 행사에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경북도, 성주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성주창의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보고 즐길거리가 풍성한 행사로 가족단위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크리스



마스 포토존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으며 각종 이벤트(빠에로 풍선 만들기, 참별이 굿즈 증정 SNS 이벤트) ▲캐롤뮤직페스타(재즈밴드 등) ▲참여형 프로그램(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푸드트럭 및 플라마켓 등의 내실있고 알찬 행사 구성으로 참여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재훈 기자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캐롤뮤직페스타는 산타 망토를 입은 성주어린이집 아이들의 귀여운 울동으로 시작해, 수원중학교의 국악 관현악단 가야산 애(애)의 국악과 캐롤 공연, 선생님과 함께한 성주고등학교 밴드 공연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새로운 춤과 옷으로 완전무한 춤바댄스 그룹 히니크루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자리잡은 성주창의문화센터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 만들기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겨울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봉사활동을 했다.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 임원 외에도 총무과 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봉

사활동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47가구에 연탄 1200여 장을 배달해 나눔문화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상현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사랑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봉사활동을 벌이게 됐다"며, "안으로는 공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연탄 나눔, 김장 봉사 등 소외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신경운 기자

## 아이품은 행복도시 미래담은 희망 영천

###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이어 7개소 예정

영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에 심혈을 쏟고 있다.

시는 26일 금호읍 어울림센터에서 방과후 초등 아동 돌봄시설인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금빛마을돌봄터)' 개소식을 가졌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됐으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세~12세)에게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습, 놀이, 돌봄 등을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연면적 134.32㎡ 규모로 이용정원은 31명이다. 영천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며 종사자는 센터장, 돌봄코디네이터, 돌봄교사로 총 3명이 근무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내뿐만 아닌 금호읍에도 평소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원하고 시급했던 아동시설이 개소해 더욱 반가운 마음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음소리 가득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소를 운영 중이다.

돌봄 격정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완산동 5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7개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상주시·의성군 2023년 행정 빛났다



농협의 성군지부 2000만원 기부

NH농협은행 의성군지부가 희망2024년농캠페인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지부는 상시 지역내 소외 계층을 위해 축산품 등을 기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전진혁 지부장은 "앞으로도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로 지역에서 함께 있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한결 같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을 위해 힘써주시는 임직원분들에게 감사, 기쁘한 소중함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터 면적 6518㎡, 연면적 1,997.63㎡의 지상 2층 건물로 경북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다.

2019년 경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원원동 일대에 2021년 12월 착공했다.

총사업비 91억(국비 9.5, 도비 12.5, 시비 70)을 투입, 올해 7월 준공했다.

모자실 13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황토방, 운동실 등으로 구성, 이용료는 2주에 180만원으로 상주시민은 30%, 취약계층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식

문경시는 지난 22일 한국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위령탑 제막식과 추모식을 가졌다.

행사는 경과보고, 위령탑 제막, 추모제, 추모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은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총사업비 3억원(도비 1억원, 시비 2억원)이 투입, 8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쳐 영순면 의곡리 1272 일대에 건립됐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가에서 1949년 '잔존하는 죄의세력'을 보호·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죄의포섭단체로 만들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상주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되는 영예 의성군, 경북도 주최 2023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우수

상주시는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되고, 의성군은 일자리창출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상주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우수

상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 재정성과급 2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확보했다.

평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2023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노력도와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는 부시장 주재의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 4회에 걸쳐 규제발굴 회의를 개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노력한 점 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비법규적 수단 등으로 사실상 기업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분야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액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진다.

의성군, 일자리창출 우수상

의성군이 경북도가 주최하는 '2023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평가는 경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 및 일자리 창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하고 창의적인 일자리정책 수행 성과와 노력도 등 4개 분야 총 12개 항목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군은 △청년 주거·소통 공간 조성 및 플랫폼 구축 △미래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일자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등 고용 창출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관내 일자리를 창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등 올해 일자리 목표 대비 105% 실적을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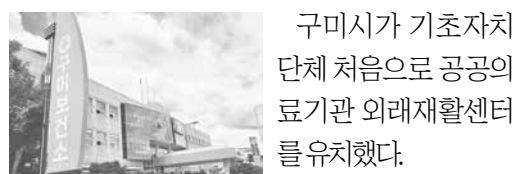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김동수 기자



구미시, 산업재해 외래재활센터 유치

기초 지자체 최초 전국 4번째 국비30억 확보... 산재 근로자 요양 초기부터 직장 복귀까지 전문 재활 프로세스 갖춰



구미시가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공공의료기관 외래재활센터를 유치했다.

전국 4번째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한 결과다. 시는 그동안 경북권에 산업재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근로자들의 재활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산재 근로자의 요양 초기부터 직장 복귀까지 전문 재활 프로세스를 갖춘 외래재활센터 유치가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산업재해는 급성기 진료 이후 초기 전문 재활의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지만 경북 지역은 공단 지역 산재 의료기관이 없어 유치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시는 내년 산재 근로자 전문 재활치료 외래재활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30억을 확보해 구미시민과 경북권 산재 근로자들의 신체 회복, 직업 및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미시의 산재 근로자들에게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징성이 크다.

최근 방산 혁신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된 구미시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으로 건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경북 도민들은 가까운 외래재활센터에서 질병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장애진단, 다양한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시도 국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사업 주체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간담회를 열어 건립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한다.

무엇보다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와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30여 명 등을 채용, 의료인력을 꾸려 대구 산재병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산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방산 혁신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지원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15년 막힌 문경의 혈 뚫린다!

문경시의 숙원사업이었던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연결하는 단산터널이 드디어 뚫리게 된다.

시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사업'에 대한 국비 100억원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비 10억을 확보했다.

단산터널은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가로막는 단산(해발 956m)을 통과하는 직선거리 1.98km 도로 터널화 사업이다.

2008년 사업 승인을 득한 후 양방향 진입로(왕복 2차로) 3.68km를 준공했지만 이후 예산 부족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터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민 숙원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단산터널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문경시는 국비확보에 다시 급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년의 노력 끝에 국비 100억원 확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단산터널 개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켜 국비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 단산터널 개설의 필요·당위성,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성과다.

문경읍과 산북면을 연결하는 단산터널이 개통되면 차량기준 50분이던 거리를 5분으로 단축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및 문경새재 권역과 도청 신도시까지 시간 및 거리 단축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다.

시는 내년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연계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수 기자

김천시,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전격 시행

경북 첫 남자 냉동 시술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김천보건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남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임신, 출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자 냉동이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건

강한 난자를 채취, 동결보존한 뒤 원하는 시기에 해동,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난임 인구 감소와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술이다.

지원 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남자 냉동 시술을 한 자로서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30~38세 여성이다.

20~29세 여성 중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난소기능 검사(AMH) 1.0ng/mL 이하)에도 지원 가능하다.

남자 냉동 관련 진료비,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 등을 포함한 비용의 50%, 최대 200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2741로 하면 된다.

전현철 건강증진과장은 "남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가임력을 보존하여 장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보건소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쓴다. 이경호 기자

의성군, 시가지 일대 경관조형물 설치 완료

시가지 찾는 관광객 다양한 볼거리 제공

의성군이 연말연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경관조형물을 설치했다.

의성을 시가지를 찾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12월 초 의성을 복원사거리에서 역전오거리 구간 도로변 가로등주에 조형물을 설치한 데 이어 역전오거리에서 의성우체국 구간에 경관조

형물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된 경관조형물은 의성眞 브랜드와 의성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 패턴, 의성국가지질공원 심벌마크 등의 디자인을 활용했다.

지역 특색을 반영, 야간경관에 어울리는 달·별 모양의 디자인을 조합,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은 복원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트리 조형물·군청 주변 야간경관 조형물 등과 어울려 연말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주·야간으로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립봉곡도서관, 도서 행정 경북 최고

2023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 차별화된도서관 서비스 구축실현

구미시립봉곡도서관이 '2023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상인 '대상'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경북도 공공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경북도 소재 4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를 종합평가해 대상, 최우수, 우수도서관으로 나눠 선정한다.

구미시립봉곡도서관은 구미시가족센터와 협력 연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층 자료실 열람 환경 개선, 사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큐레이션 운영(공유서거) 등 공간혁신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재웅 구미도시공사는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봉곡과 선산 2개 도서관의 특화사업에 더욱 집중한다. 봉곡·의창도서관, 선산의플래이가든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라이브러리(Library)에서 라이프러리(Library)로 진화하는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권기창 안동시장은 27일 2023년 제4차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회에 참석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7일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영주시생 활개선회 연말총회에 참석하고, 11시에는 환경관리원사무실에서 열리는 2023년 하반기 환경관리원 퇴임식에 참석한다.



안동 하회마을 해맞이 행사

새안동하회마을보존회는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화산 정상에서 '갑진년(甲辰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회마을 주산(主山)인 화산 정상(해발 328m)에서 진행되는 해맞이행사는 무료로 떡국과 두부, 막걸리를 제공한다. 안동 풍천면 풍물패 공연, 기원제, 대북공연, 탈춤 한마당 등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된다. 2024년은 육십간지 41번째 '청룡의 해'로 푸른색의 '갑(甲)'과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만나 권력, 힘,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류열하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은 "공동체 문화와 음식 나누기 등 민속문화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풍습"이라며 "갑진년 청룡의 힘과 힘차게 떠오르는 해, 화산의 기운을 받아 2024년은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신궁' 김제덕, 장학금 기탁

예천군민장학회는 26일 양국 국가대표 김제덕 선수(소속 예천군청)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오백만 원을 전달받아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김제덕 선수는 도쿄올림픽에서 혼성단체전과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고 2021 세계선수권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남자양궁의 미래로서 현재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다.

김선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고 예천 지역의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김제덕 선수의 마음이 담긴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 안동시민의 힘... 미래 100년 희망 싹 틔웠다

### 2023 안동시 '10대 시정' 이슈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유치 성공 안동대 글로벌대 선정 등 꼽혀

시(市) 승격 60주년을 맞은 안동시가 2023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10대 시정 이슈를 발표했다.

시민의 힘으로 삶에 기본 좋은 변화를 일구며 부드럽고 강한 안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래 100년 희망의 싹을 틔웠다. 평가다.

특히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바이오 산업과 교통·물류의 혁신이 눈길을 끈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장차 70여 유망 바이오기업 입주로 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예상한다.

또 중앙선 KTX가 안동에서 출발해 청량리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된다.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안동의 전통문화가 대한민국 전통문화콘텐츠에 트렌드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하회마을 만송정 인근에서 개최된 하회선유출발놀이는 SBS 드라마 '악귀'의 흥행에 힘입어 6번의 공연마다 역대 최대 관객을 경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증폭하는 가운데 하회마을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문화와 재미와 감동이 있는 놀이문화가 어우러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대상에 선정됐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학과의 동반 성장 기틀도 마련했다.

국립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 글로벌대학에 선정되며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산업의 육성이 동반성장의 선순환 체계로 추진될 것이다.

또한 안동시는 학업장려금 지원, 행정인턴제 도

입 등으로 국제적 인재 양성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댐을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한 물산업클러스터의 비전을 밝히고, 대구시와 광역상수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안동댐을 낙동강 생명수 공급의 전진기지로 삼아 대구를 시작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나아가 부산까지 물을 공급해 낙동강 1,300리로 이어진 이웃 지자체와 상생발전을 다지고, 수자원 연구기관-기업을 유zieh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옛 안동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데 성공했다.

옛 안동역사 부지를 축제의 공간으로 개방하면서 단절의 공간에서 남과 북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하며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민의 염원에 한 걸음 다가갔다.

또한 관내 약 35km의 중앙선 폐선 구간은 복합휴양레포츠가 가능한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할 전

망이다.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구간을 '중앙선 1942'로 명명하고 사람과 장소가 잇닿은 매력적인 길 등의 테마로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기존 낙동강변 물놀이장이 협소하다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수품, 파도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확장 개장했다.

또한 안동 대표 관광지인 월영교와 선성현문화 단지는 문체부 열린관광지에 선정돼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한층 개선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시민과 손잡고 의회와 소통하며 1500여 공직자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책임질 기업이 태동하는 대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길 기자

## 영양군 우박피해농가 특별영농자재비 지급

### 재난지원금 별도로 2.5억 편성

영양군은 지난 10월 26일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영농자재비 2억5000만원을 편성 지원했다.

지난 우박은 이례적으로 10월 말에 내려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과수(200ha)와 배추(50ha)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3년도에는 저온 및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다수의 재해가 발생해 이미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수확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우박피해를 입어 농가의 시름이 컸다.

이에 군은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당 100원의 특별영농자재비(3회 추경, 군비 100%)를 편성 지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례적인 시기의 우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특별지원금이 우박피해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 영양군 내년 국비 추가확보 군민 숙원사업 해결 청신호

### 31번 국도 선형개량 등 탄력

영양군이 국비예산 확보로 주요 현안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군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주진입로 31번 국도 선형개량 사업(총 사업비 920억 원) 착공비 10억 원, 기존 화재저수지의 노 위주 급수방식 변경을 위한 석보 화재저수지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총 사업비 146억 원) 기본 조사예산 3억 원 등 총 13억 원을 국회 증액 예산으로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군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물꼬를 트게 됐다.

또 주요 국비 사업 △마을 상수도 정비 등 176억 원, △영양 밤하늘 정정예코촌 조성 6억 5천만 원, △수비면 죽파리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5개소) 95억 2천만 원, △마을 생활여건 개조 사업 19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7억 2천만 원, △석보면 국민체육

센터 3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1억 8천만 원, △면단위 LPG배관망 사업 14억 원, △영양읍 동부리 농촌공간 정비 사업 12억 원 등의 예산 확보로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국립시설인 국립별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관 운영비 9억 3천만 원도 확보해 지역 주민 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국비 예산에는 국도 31호 선형개량 사업 등 '사통팔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군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어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군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은 영양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 봉화읍 한여농회, 자연정화활동



봉화읍 한여농업인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겨울맞이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자연정화활동은 봉화읍 한여농회 15여 명이 참여했으며, 회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구간 누적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화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

한여농회 회원들은 구간 주요 관광지 및 하천변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왔으며 농촌일손돕기, 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이웃돕기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장달호 봉화읍장은 한여농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 송년발표회

영주시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3일 다목적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꾸고 도전하며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제12회 송년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영주시 제공>

## 청송군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 신소득 작목 육성, 전문인 양성

청송군농업기술센터가 경북농업기술원이 주관한 2023년 농촌진흥사업 도 단위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농촌진흥사업 평가는 경북 22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추진실적, 농촌진흥사업 조직-예산관리, 전문역량개발실적 등 9개의 지표평가로 이루어졌으며,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시상은 지난 22일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농업 연구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됐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촌활력증진 및 삶의 향상이라는 목표로 황금사과 및 새소득작목육성 등 다양한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촌지원사업에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농업현장 중심의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했다. 또 사과과공 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교육을 통해 청송사과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송군 실정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했다.

기술지원사업에서는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외래해충 등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했고,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을 통한 융복합기술 농가확산 및 첨단농업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다축형 사과원 조성 및 황금사과 재배단지 조성을 통하여 청송사과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청송 황금사과 육성 및 재배기술연구를 위하여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빠르게 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꿈나무유성

#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플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 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